

내년부터 전남 찾는 동남아 관광객 늘어난다

전남도·전남관광재단, 베트남·라오스서 관광상품 설명회 현지서 딸기 따기·눈썰매 등 겨울철 특화 프로그램 인기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최근 3일간 개최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등 2024년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설명회는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현지여행사,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남도와 베트남 협력 여행사인 에이 앤드 티는 2024년 설 연휴 등에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하고, 관광객 1천 명을 목표로 전남관광 상품 소개 및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방문지는 신안 퍼플섬, 순천 낙안읍성, 목포 근대역사관 등이다. 특히 겨울철 특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영암·보성 딸기 따기, 곡성 눈썰매, 나주·목포 찜질방 체험에 현지 여행업체가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피서픽항공, 베트남항공, 비엠헤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

며 나트랑, 달랏 등 4개 노선에 6편이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을 통한 상품 운영과 별개로 2024년 설 명절 연휴에 다낭, 호치민 등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500여 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베트남 관광객 700여 명이 방문해 전남의 맛과 멋, 정취를 느끼고 갔다.

전남도와 에이 앤드 티는 2024년 봄꽃 축제를 겨냥해 4월부터 6월까지 하노이 전세기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로 500여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상품 설명회는 신규 시장인 라오스를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라오스는 신규 시장이지만 수도 비엔티엔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콕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태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

12월 중 라오스 상품이 출시·판매되며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라오항공이 라오스



비엔티엔과 무안국제공항을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베트남, 라오스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와 만나면서 전남 방문의 해 운명으로 전남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꽃, 바다, 단풍, 눈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계절별 특화 관광상품 운영으로 세계적 외국인 관광객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김영록 지사가 베트남 현지 전남 관광 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 국제공항 전세기, 정기편 업무협약’과 무사중 제도를 운영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3천여 명의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예산 전액 삭감...섬 지역민들 ‘반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고싶은 섬 을 지정해 해당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도의회 조례 제정까지 했다. 지난 2021년 시행후 2022년 2023년 까지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왔으나 요구한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빌미로 섬 지역 관광지 활성화 지원 정책이 백지화 상태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도 사업비8억2천4백만원(여수시2억4백만원,고흥군2억1천3백만원,완도군1억3백만원)23년도11억4천9백만원(여수시 2억5천만원,고흥군 2억1천3백만원,완도군 4억3백만원,신안군 3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예산 3억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됐으나 3억원이 완도군에 집행 된것에 대해 도지사의 고향에 특혜성 편성이 아닌 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24년도 섬 여객선 운임 반값지원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제외돼 전남 관광 섬 에대한 김영록 도지사의 의지에 물음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도의 관계자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4년도 예산편성에 18억 7천6백만원을(도비 9억3천,시군비9억3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제출 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선욱 기자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 “지역소멸 극복,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업해야”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국립순천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대학의 위기에 맞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고등교육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총장들은 “순천대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됐다”며 “지역 대학과 공동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혜와 정신을 고양하지 못한 채 지식만을 교육하는 현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며 “학문생태계의 다양성이라

는 대학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계,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근과 콘크리트는 팽창과 수축 비율인 열팽창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외부 온도 차에도 건물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대학들도 철근과 콘크리트 처럼 협력 할 때 지역과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건물도 견고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21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순천대 회의에는 광주교대, 광주대, 남부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송원대, 국립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10개교가 참석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5·18최후항쟁지 가려” vs “지하ACC홍보 창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 지하 이전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과정에 철거·존치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가로 75.2m·세로 16m)이 철거돼 지하로 이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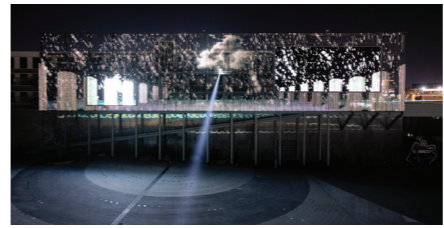
옛 전남도청 뒤편 전남경찰국 건물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5·18 최후 항쟁지이자 사적지를 가린다는 지적에 철거 뒤 재설치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장소를 본래 모습대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오는 2024년 8월부터 ACC 미디어월을 철거해 지하광장에 다시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ACC 미디어월은 HD급 미디어 철제망에 21x9m, 10x6m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 2개를 붙여 제작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복원추진단은 철골 구조물과 스크린 2개를 철거할 방침이다.

복원추진단은 새로 제작한 LED 디스플레이(가로 34m·세로 10m)를 현재 큰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약 10m 아래 지점에 재설치한다.

지하에 위치하게 될 새 ACC 미디어월은



지하인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마주할 수 있지만 지상부에서는 내려다보아 보이는 구조다. 앞서 미디어월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뒤 ACC가 2017년 26억여 원을 들여 제작했다. 미디어월은 지하에 위치한 ACC와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추진단은 미디어월이 5·18 최후 항쟁지인 도청을 가린다는 이유에서 철거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미디어월이 사적지를 가리는 장애물이냐, 소품 창구나를 두고 존치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ACC 미디어월 운영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김희면 기자

광주 복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복지부 장관상 수상

광주 복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기관’으로 선정,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모범사례를 발굴, 전국에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40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주요 성과 정량평가,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복구는 ‘더 다양한, 더 두터운, 더 촘촘한 통합돌봄 다·돌·봄’ 사례를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복구의 통합돌봄 공모 사례는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에서부터 정책을 총괄하는 분청까지 돌봄 전담 인력을 두루 배치, 돌봄 대상자를 동·구역·지역 별로 관리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를 상황식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슬비 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3.년 단 107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홍지순 (420901-2009113)
 최 후 주 소 : 전남 강진군 정전면 신에장동길 46-8(도림리)

위 망 홍지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2월 11일

공 고 인 : 윤은주, 윤병주, 윤진성.
 주 소 : 서울 관악구 청룡길 78, 102동 702호 (봉천동, 서울대입구아이원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2월 6일
 공 고 기 간 : 2023. 12. 11 ~ 2024. 2. 11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구분 |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
|------|----------|----------|---------|---------|---------|
| 고소득층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 저소득층 | | | | | |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문직업재단
 Korea Professional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한 근무 시간(8시간)은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살린다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지킨다는 슬로건입니다.